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전략에 대한 역사적 고찰

許東旭*

1. 머 리 말
2. 군사동맹을 통한 한반도 군사개입 : 영향요인
3. 중국의 군사개입 결정요인 분석
4. 맺 음 말

1. 머 리 말

천안함 피격 사건¹⁾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 김정일은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 소행이 아니라 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소행이기 때문에 중국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는 것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합의하였으며, 한·중·일 정상회담과 아시아 안보회의, G20 캐나

* 육군대학 전문교관, 충남대학교 군사학 박사과정

1) 2010. 3. 26. 백령도 해상에서 북한 어뢰공격에 의해 한국 해군 초계함정(1200톤급) 천안함이 피격되어 해군장병 46명이 전사한 사건

다 정상회담에 참석하여 동맹국과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요구하였다. 최근(最近) 한반도 주변국의 동향²⁾을 외국 언론들은 “지금 한반도는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양국이 전략적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립하기 전에 공식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새로운 외교전략 논의를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전략적 대화의 일환으로 이번 천안함 사건 후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미·중 경제 전략대화’에서 중국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각국이 절제된 태도로 이 문제를 처리해 한반도 긴장을 막아야 하며,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또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입장을 결정할 것”이며 천안함 피격 사건은 “성문에 화재가 난 것”³⁾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렇게 북한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중국은 한반도 안보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한반도 주변전략에서 중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한반도를 중국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로 보았다.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독자적인 중국의 대항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해양

-
- 2) 미국은 백악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국제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발표하였고, 미국 하원은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일본은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긴급 각료회의를 소집 ‘한국을 강력히 지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영국·프랑스 등은 북한을 규탄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각국이 절제된 태도로 이 문제를 처리해 한반도 긴장 막아야, 현재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평가 분석 중’,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이 분쟁으로 발전하지 않게 관련 당사국 모두 신중해야, 천안함 조사 자료 검토 중’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익재·이승호, 『중앙일보』, 2010. 5. 22.
- 3) “성문실화 양급지어(城門失火 殃及池魚): ‘성문에 난 화재 때문에 성 안의 연못에 사는 물고기가 타죽을 수도 있다’고 한 것으로 이는 60년 전 6·25전쟁 때 모택동이 “한반도 전쟁의 불길이 중국 동북지방에 미쳐 중국군이 군대를 보내 국가를 보위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폈었다. 박승준, “박승준의 중국 바로보기”, 『월간조선』 2010. 6. 21.

세력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전통적인 대(對)한반도 기본전략⁴⁾이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친중국(親中國)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은 중국의 국가안보에 중요한 의의를 제공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대(對)한반도 인식 아래 한반도에서 현 체제의 안정유지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통일보다 분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선호하고, 특히 인접한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됨으로써 중국의 안보에 악영향이 미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⁵⁾ 그러나 2006년 북한의 도발행위와 대미관계 긴밀화 시도로 인하여 중국의 내부에서는 '북한부담론'⁶⁾을 주장하며, 중국의 대북정책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어떠한 성격의 강대국이 되느냐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동북아는 북핵문제, 양안문제, 도서 영유권문제, 경제수역문제, 역사문제 등 세계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갈등요인들이 잠재해 있는 지역이다.⁷⁾ 이러한 복잡한 역학구도는 중국의 국가전략이 동북아지역 안보환경을 협력적이거나 경쟁적 또는 적대적인 관계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한반도 급변사태 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을 예측가능하게 한다.

중국의 일부학자는 중국 영토를 닭의 형상에 비유하여 한반도는 닭 부리이며,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은 닭 목이라고 하였다. 중국의 영토는 960만 Km²로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3위이며 한반도의 44배이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는 총 14개국⁸⁾이며, 중국 영해와 국경을 이루는 나

4)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순망치한(唇亡齒寒)”의 위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대에서 근대로 내려오면서 중국과 중국인들에게 지정학적 안보관으로 정착되었다. 서상문, 『毛澤東과 6·25전쟁』,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p. 286.
 5) 김국현, “중국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국방일보』 2009. 9. 10.
 6) 유현정, 「북-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선택」, 『정세와 정책』 170호, (성남: 세종연구소, 2010), p. 7 ; 박창희, 「북한급변사태와 중국의 군사개입 전망」, 『국가전략』 51호, (성남: 세종연구소, 2010), pp. 34~35. 참조.
 7) 국방부, 『2008국방백서』, (서울: 유진피엔피, 2009), p. 13.
 8) 북동쪽은 한국(북한), 러시아, 몽골, 서쪽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남서쪽은 파키스탄, 인도, 네팔, 부탄, 남쪽은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과 각각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국경선의 총 길이는 2만 280Km임.

라는 총 9개국⁹⁾으로 중동(서남아시아)을 제외한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¹⁰⁾ 거대한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과 국방비 증액으로 군 현대화를 추진하여 '정보화 조건하 국지전 승리전략'¹¹⁾은 주변국인 우리에게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림 1> 참조



<그림 1> 중국 국경지도 및 7대 군구 분포도

이렇게 많은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군의 주요 임무는 군 현대화를 통해 국토와 주권의 수호, 해상권의 보호, 국가통일 유지, 내부안정도모,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된 주변의 외부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중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사위협은 다음과 같다.¹²⁾

9)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대만, 일본, 북한, 한국임.
 10) 육군대학, 『중국지상군 전술』, (대전: 육군 인쇄창, 2008), p. 18.
 11) 중국인민해방군은 국제전략환경과 국가 안보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정보화를 국방 현대화 건설 방향으로 설정, 해·공군 및 제2포병을 중점 건설하여 정보화 조건하 국지전 승리에 주력하고 있다.
 12) 박창희, 『중국정세 세미나 자료』, (서울: 국방정보본부, 2009), pp. 4~6.

첫째, 중국군은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잠재적 적을 억제하고, 억제실패 시 적의 침공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 해양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국해군의 현대화로 해양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중국군이 수행해야 할 전략적 임무이다. 중국은 해양자원 확보, 해상교통로의 안전유지, 원양어업 보호, 그리고 해안지역을 방호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셋째, 국토의 통일을 유지하는 것이다. 중국군은 대만에 대해 억제와 강압뿐 아니라 필요시에는 실제 군사작전을 실시할 수 있다.

넷째, 중국군은 안정적인 주변 환경조성을 핵심적인 임무로 하고 있다. 한반도 또는 대만해협에서의 위기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 무력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중국을 견제하거나 봉쇄할 것이며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중국 공군사령관 쉬치량(許其亮)은 신화통신, 해방군보(解放軍報) 등 중국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우주를 장악하는 나라는 지상과 해양은 물론 전략적인 군사적 우위를 점할 것”이라며 “중국 공군은 우주에서의 작전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임무라고 생각한다. 하늘과 우주공간에는 국경선이 없다. 오로지 힘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¹³⁾ 이는 중국이 군사 전략 면에서 ‘적극방어’(active defence)¹⁴⁾와 ‘신속대응’¹⁵⁾ 개념을 채택함으

13) 김청중, “中, 우주에도 장성(長城) 구축한다”, 『세계일보』 2009. 11. 4.

14) 적극방어는 영토·영해 밖에서 적국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한발 더 나아가 적 공격이 예상될 경우 적의 공격기지를 선제타격한다는 것으로 “남이 나를 범하지 않으면 나도 남을 범하지 않겠지만, 남이 나를 범하면 나는 반드시 남을 범할 것”(人不犯我, 我不犯人, 人若犯我, 我必犯人)이라는 모택동의 전략개념에서 파생된 것이다. 실제로 6·25전쟁 시 한반도 파병은 공세적인 전진방어 전략의 한 사례이다.

15) 중국의 신속대응부대는 위기발생시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신속하게 전개한다. 이 부대는 첫째, 적진의 핵심표적을 타격하고 빈틈을 노리는 ‘통로개척(door opener)’, 둘째, 적의 전투잠재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표적을 파괴하는 ‘수술칼(scalpel)’, 적의 핵심지역을 탈취하는 ‘철퇴(steel hammers)’, 그리고 적지에 새로운 전투지역을 형성하여 전역테포를 증가하는 셋째, ‘부스터(booster)’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Paul H. B. Godwin, “From Continent to Periphery: PLA Doctrine, Strategy and Capabilities Towards 2000,” David Shambaugh and Richard H. Yang, eds., *China's Military in Transition*(New York: Clarendon, 1997), pp. 205~206.

로써 수세적 입장에서 공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며, 이러한 중국의 공세적인 전략개념은 주변국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천안함 피격 사건은 중국의 존재가 한반도에서 얼마나 큰 것인지를 실감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미국 국방부장관 게이츠는 '실수와 오판'을 피하기 위해 중국과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며,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¹⁶⁾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과거 10년 동안 미국 정보기관의 예상을 뛰어넘었으며, 이처럼 전례 없는 중국의 군비확장은 동북아지역에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 내용을 증명하듯 중국 정부가 정식으로 발표한 국방예산 보고(표 1)에 의하면 1991년부터 2009년까지 국방예산의 증가율은 13% 이상 유지되고 있다. 향후 10년 동안 중국이 안정된 경제발전 속도와 현재 14.9%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유지할 경우 1995년 76.02억 달러에 불과했던 국방예산은 2010년 618.53억 달러, 2015년 1244.09억 달러에 달하며, 2020년 국방예산은 2009년보다 3~4배 증가할 것이다.¹⁷⁾ 한편, 미국 국방부는 2008년 3월 발표한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의 실제 국방예산 규모를 970~1,390억 달러(중국 발표 국방예산의 3배)로 추정하고 있다.¹⁸⁾

〈표 1〉 중국 국방예산 증가 현황

연 도	국방예산(억원)	예산증가율(%)	재정지출비율	GDP 비중
1991	330.31	11.99	9.75	1.53
1995	636.72	21.24	9.33	1.09
2001	1442.04	17.70	7.63	1.48
2005	2474.18	12.60	7.34	1.38
2006	2838.00	14.70	7.50	1.40
2007	3509.21	17.80	7.50	1.35
2008	4178.00	17.60	7.20	1.40
2009	4825.00	14.90	6.30	1.40

※ 출처 : 중국 국가통계국 『'05년~'06년 중국통계연감』 및 2008 중국국방백서, 2009년 자료 종합

16) 육군 교육사령부, 『週刊 해외 군사자료정보』, 09-42호(2009. 11. 2).

17) 정보사령부, 『中共和年報 2008 제3편 군사』, (서울: 정보사령부 발간대, 2009), p. 38.

18) 국방부, 전계서, p. 16.

따라서 중국군은 단기적으로 군 현대화를 추구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군사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 목표는 2010년까지의 제11차 5개년 국방과학기술계획에 나타난 것처럼 기계화 장비에서 정보화 장비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올해는 6·25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어느 때보다 ‘天下雖安 忘戰必危’(천하가 비록 태평하더라도 전쟁을 잊고 있으면 필히 위기를 맞게 된다)라는 옛 경구가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기록이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미래의 창조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변화하는 상황에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 한국군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해야 하며, 억제실패 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중국대륙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한반도에 군사적이든 정치적이든 영향을 미쳐 왔었다.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은 수(隋)의 고구려 침입, 몽고(蒙古)의 고려 침입, 청(淸)의 조선 침입 등 일방적인 침략뿐만 아니라 신라와 당나라의 군사동맹,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방위전략, 그리고 중국의 6·25전쟁 개입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의 국가존망에 큰 영향을 주었다. 현재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경문제와 내부안정·대외안보·전략적 균형 측면에서 자국의 국익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입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진 전쟁 중 군사동맹을 통한 전쟁사례를 분석하여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결정요인을 찾고자 한다. 도출된 공통적인 결정요인이 중국의 군사개입 결정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분석을 통해 제시하여,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군사개입 결정요인으로 군사개입을 전망하고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참고자료는 중국관련 각종 문헌자료와 해외 군사자료, 세계 정치지도자들의 중국관련 기사 등 최신 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2. 군사동맹을 통한 한반도 군사개입 : 영향요인

(1) 나(羅)·당(唐) 군사동맹에 의한 당의 군사개입

역사적으로 한미동맹을 제외하고 중국대륙과 한반도 국가 간에 군사동맹을 통한 전쟁사례는 신라와 당나라, 조선과 명나라, 중국과 북한의 6·25전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먼저 나·당 군사동맹에 의한 당의 한반도 군사개입 배경과 영향요인을 살펴보겠다.

1) 전쟁수행 결과

618년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새로운 통일왕조로 등장하였다. 당의 대외 정책은 삼국이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을 기본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신라가 친당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당은 친신라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627년에는 백제에 사신을 파견하여 신라침공을 중지하도록 압박하기도 하였다. 또한, 643년 9월 신라의 김춘추가 당에 특파되어 양국 간 동맹체제 구축을 모색하자¹⁹⁾ 당은 신라를 전략적 동반자로 선택하여 고구려를 압박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연합세력에 비해 열세한 군사력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3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하였다.

이 시기에 당은 645년 안시성 전투에 실패하여 철군한 이후 647년에 다시 소규모 부대로 변경지역에 대한 교란작전을 전개하여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고구려를 압박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당은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고,²⁰⁾ 이 무렵 신라가 동맹체제 구축을 제의해 오자 군사동맹을 맺게 되

19) 『三國史記』 권5, 신라본기 제5 선덕왕 12년(643) 9월.

20) 당의 고구려 침공 원인을 당의 국내 문제와 깊이 연관된 것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어서 주목된다. (박한제, 「七世紀 隋唐 兩朝의 韓半島進出 經緯에 대한 考察」, 『東洋史學研究』 제43집, 1993, pp. 37~39.

었다. 당이 고구려를 침공할 때 고구려의 배후에서 후방지역을 교란하고, 주요 군수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신라와 제휴함으로써 고구려의 군사력을 분산,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²¹⁾ 이러한 정황 분석에 따라 당은 오히려 주도적으로 신라의 요청을 수용하려고 하였다.

당은 고구려를 먼저 침공하려던 초기 계획을 중지하고, 백제를 먼저 침공한 후 고구려를 나·당 연합군이 협공하는 전략으로 수정하였다. 이와 같이 당나라와 신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자 비로소 나·당 연합군 편성이 추진되었다. 당 고종은 660년 3월에 소정방(蘇定方)을 총사령관으로 삼고, 당에 체류하면서 청병외교(請兵外交)를 추진하고 있던 신라 왕자 김인문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총 13만²²⁾ 대군을 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660년 6월 당군은 최단거리인 산둥반도 내주항(棗州港)에서 출항하여 서해상으로 이동, 웅진 덕적도를 경유한 후 금강 입구로 상륙하여 백제 수도 사비성으로 진격하였다. 신라는 김유신의 지휘하에 5만 대군을 백제 수도 사비성으로 출동시켜 나·당 연합군은 660년 7월 18일 백제의 항복²³⁾을 받았다. 당은 1단계 팽창정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660년 9월, 1만여 명을 백제 점령군으로 잔류시키고 철군하였다.

나·당 연합군은 2단계 목표인 고구려 확보를 위해 661년 7월 당군은 약 17만 5천여 명을 35개 군으로 편성하여 수륙 양면으로 고구려를 공격하였고, 신라군은 군수지원을 담당하였다. 김유신 등 9명의 장수가 지휘한 지원 부대는 수레 2천여 량에 쌀 4천 석과 벼 2만 2천여 석을 황해도 수안에서 당군에 군량으로 전달하였다.

그런데 당군은 고구려군과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상황에서 일부 병력을 본국으로 복귀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즉, 661년 중국 내륙 서북지역에서 회홀(回紇 : 위구르)은 당의 주력군이 고구려 침공을 위해

21) 이만열, 「統一-外交의 成立-金春秋」, 『講座 三國時代史』, 지식산업사, 1976, p. 228.

22) 『三國史記』, 『東國兵鑑』 등 우리 측 자료에는 13만 군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中國歷代戰爭史』 제8冊(三軍大學編著 여명문화사업공사 1981 수정 2판) 등의 중국 측 기록에는 모두 10만 군으로 되어 있다.

23) 백제는 678년 동안 31대 왕조를 거쳐 마지막 의자왕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빠져나간 군사력 공백을 틈타 침략하여 당군 1만 4천여 명을 전멸시키는 큰 타격을 입혔다. 이러한 사정으로 주력부대 일부를 본국으로 철군하지 않을 수 없게 됨에 따라, 고구려 침공 작전에 차질을 빚게 되었고, 결국 소정방의 부대가 662년 3월에 철수함으로써 1차 침공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²⁴⁾

나·당 연합군의 2차 고구려 침공은 666년 12월에 있었는데, 이때 당은 이세적(李世勣)을 사령관으로 침공부대를 재편성하였다. 나·당 연합군과 고구려군은 667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요동지역에서 사활을 건 격전을 벌였으며, 나·당 연합군은 668년 2월 부여성(扶餘城), 668년 9월 압록강을 건너 고구려 수도 평양성을 포위하여 1개월 만에 고구려 보장왕의 항복²⁵⁾을 받았다.

2) 당(唐)의 군사개입 영향요인

당나라가 신라와 군사동맹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영향요인을 군사개입 의도, 시기, 군사력 규모, 이동로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당나라의 한반도 군사개입 의도이다.

한반도에 대한 군사개입 의도는 전쟁원인 분석과 동일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²⁶⁾ 중국 대륙으로부터 당의 군사개입은 영토 팽창정책에 의한 한반도 지배야욕이었다. 당은 신라를 그들의 팽창정책에 이용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군사동맹을 체결하였다. 백제를 멸망시킨 후 소정방 부대를 본국으로 철수하며, 1만여 명을 사비성에 잔류시켜 백제 지역에 5도독부를 설치함으로써 당의 지배체제로 개편하였다. 또한,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평양에 설치한 안동도호부는 고구려 고토에 설치된 9개 도독부뿐만 아니라 백제 영

24) 서인한, 『한국고대 군사전략』,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pp. 285~288.

25) 고구려는 705년 동안 28대 왕조를 거쳐 마지막 보장왕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26) 월츠(Kneeth N. Waltz)의 전쟁원인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월츠는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인간의 본성, 사회 또는 국가의 특성, 국제체계의 구조적 특징을 연구함으로써 인간, 국가, 국제체계의 세 가지 분석수준을 사용하였다. 육군사관학교 군사학처, 『전쟁연구』, (서울: 한원, 1991), pp. 123~136.

역 및 신라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한반도 전체를 통치하려는 당의 지배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렇듯 당은 국익을 위해 신라와 연합하여 한반도 통일에 깊숙이 관여하였으며, 통일된 한반도를 통치하여 잠재적 위협요소를 차단하려 했던 것이다.

둘째, 당의 군사개입 시기이다.

당 태종은 648년 신라 진덕여왕의 지원병 요청을 수용하여 나·당 군사동맹을 체결하였으나, 한반도에 군사개입은 12년 후, 당 고종에 의해 660년 3월 소정방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13만 대군을 출병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즉, 당은 신라의 청병에 의해 나·당 군사동맹을 체결하였으나, 신라가 원하는 위급한 시기에 출병하지 않았으며, 당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시기에 출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한반도 군사개입 시 군사력 투입 규모이다.

백제를 멸망시킬 때 당은 13만 대군을 신라 5만 대군과 연합작전으로 백제 수도 사비성을 공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고구려에 대한 1차 공격 시 당은 17만 5천여 명을 35개 군으로 편성하여 수륙 양면으로 공격하였으며, 신라군은 군수지원을 담당하였다. 고구려를 멸망시킨 2차 공격 시 당군은 고구려 수도 평양성을 포위하였고, 신라군도 임진강을 건너 북진하여 평양성 공격에 연합작전을 펼쳐 고구려의 항복을 받아 내었다. 특이한 점은 당의 고구려 1차 공격 실패와 한반도에서 신라로부터 축출된 가장 큰 원인이, 당의 배후인 중국 내륙 서북지역에서 회홀과 토번의 침공으로 한반도 전쟁에 주력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중원을 호령하던 당나라도 배후에서 협공을 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은, 오늘날 중국의 주변국 안정과 완충지대를 유지하려는 군사전략에서 엿볼 수 있다.

넷째, 한반도 군사개입 시 이동로이다.

당은 백제 공격 시 13만 대군을 산둥반도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여 금강 입구로 상륙, 백제 수도 사비성을 공격하였다. 연합전력의 주력인 당군이 중국 내륙에서 배를 타고 수로를 이용함으로써 사비성에 이르는 지상 이동

을 최소화하고 사비성까지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었다. 고구려를 공격할 때 당은 육로를 이용하여 국경에 인접한 고구려성을 함락시키며 신성, 요동, 부여성, 압록강을 건너 고구려 수도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특이한 점은 백제는 고구려 남진에 대비하여 육상 방위태세 강화에 주력함으로써, 서해상 및 수상 통로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하여 6일 만에 항복하고 말았다.

이 점은 최근 천안함 사건과 북한 해군의 비대칭 전력 위협, 그리고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비하기 위해 서남해안 해안방어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2) 조(朝)·명(明) 연합군에 의한 명의 군사개입

1) 전쟁수행 결과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壬辰倭亂)²⁷⁾으로 조선군은 왜군의 공세에 밀려 충주 3방어선이 붕괴되고, 근황군이 패산하자 선조는 파천(播遷)을 결행하였지만, 명나라에 지원군 요청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20만 대군의 침략을 받은 조선은 불과 20일 만인 5월 2일 한양을 내주고, 전쟁 발발 28일 만에 왜군이 평양 가까이 진입하자 불안을 느낀 선조는 1592년 6월 1일, 그때서야 대사헌 이덕형(李德馨)을 청원사(請援使: 원군을 요청하는 사신)로 파견하여 명나라에 지원군을 요청하였다.²⁸⁾

명나라는 조선군의 대동강 방어선이 붕괴되고 선조가 의주에서 요동으로 망명하려 하자, 전장(戰場)을 조선영토 내로 한정시키기 위해 요동 수비대 3,500명을 급파²⁹⁾하여, 대동강에서 왜군의 북상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27)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2차에 걸쳐 왜국이 20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범한 사건을 말하며, 1차를 임진왜란, 2차를 정유재란이라 한다. 하지만 포괄적 의미에서 1,2차를 합쳐 통상 임진왜란이라고 한다.

28) 『선조실록』 선조 25년 6월 己丑.

29) 1592년 7월 10일 즉, 임진왜란이 발발한지 3개월(1592. 4. 13), 조선의 지원군 요청(1592. 6. 1) 후 40일 만에 지원함.

그런데 요동 수비대가 평양성 공격에서 큰 타격을 입고 퇴각하자, 명은 왜군이 곧 압록강을 넘어 중국 내륙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명은 대규모 군사력을 조선에 파병하여 왜군을 격퇴시키겠다는 계획으로 10만의 병력을 지원하려 하였지만, 선조는 5만의 지원군만을 요구했다.³⁰⁾

이렇게 양국은 상반된 견해를 보였는데, 먼저 명나라는 최초로 자국의 안전방어선을 대동강으로 한정하여 조선영토 내에서 왜군을 격퇴시키려 하였으나, 삼경(三京 : 한성·개경·평양)이 함락되어 왜군이 곧 국경을 넘어 올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하여 10만 대군을 파견하려 했던 것이다. 반면에 조선은 대군에 대한 군수지원 문제로 인해 명나라 군이 가난한 조선 백성들에게 횡포를 하고 난폭하게 행동함으로써 국토를 더욱 황폐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와 상반된 견해를 보이게 되었다.

다급해진 명나라 조정은 조선의 요구를 받아들여 1592년 12월 명군 43,500명을 파견하여, 1593년 1월 6일 도원수 김명원이 지휘하는 조선군 8,000여 명과 함께 왜군 15,000여 명이 주둔해 있는 평양성을 공격하여 3일 만에 평양성을 탈환하는 대승을 거두었다.³¹⁾

조·명 연합군의 첫 승리는 왜군 20만 명이 조선국토를 유린한지 9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조선이 왜정통보(倭政通報)³²⁾를 신속히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양국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조·명 연합방위 전략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 안위보다 자국의 안위를 위해 대동강선 이남 조선 영토에서 왜군을 격퇴하려 했음을 엿볼 수 있다.

명군은 자위력을 갖추지 못한 조선이 후퇴하는 왜군을 섬멸해 줄 것을 요청하자 “왜군이 명의 국경을 넘지 않았으니 역적으로 몰아 토벌할 수 없

30) 장학근, 『조선시대 군사전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p. 166.

31) 장학근, 상계서, p. 167.

32) 왜정통보란 일본이 조선을 경유하여 명나라를 침략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나라에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외교문제임.

다”고 하였으며, 명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했다.³³⁾ 따라서 조선은 더 이상 명나라에게 결전을 요구하지 못하고 침략자와 지원자의 강화 회담 추이를 관망하는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명나라 군을 이용하여 왜군을 섬멸하겠다는 전략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³⁴⁾

강화 회담 역시 조선은 방관자에 불과했고, 명나라와 왜 양국이 제멋대로 협상을 벌였다. 즉, 이것은 조선영토 내에서 당사국인 조선을 배제시키고 침략자(왜군)와 지원군(명군)이 자국의 국익을 주장하며, 조선 영토분할과 전쟁중단의 외교교섭을 벌인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597년 2월 왜군이 142,000여 명의 병력으로 재침략을 하자, 조선 조정은 예조판서 권협(權挾)을 고급사(告急使: 급한 일을 알리는 사신)에 임명하여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했다.³⁵⁾ 명나라는 6만여 명(수군 8천 명 포함)을 파병하였다. 조·명 연합군의 총 공세는 한양 점령을 목표로 북상하던 왜군을 후퇴하게 만들었고, 조선 침략의 원흉 풍신수길은 1598년 8월 19일 사망하였다. 결국, 왜군은 조선 수군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진린(陳璘)의 조·명 연합함대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고, 1598년 12월 26일 철수함으로써 7년간의 전쟁이 끝나게 되었다.³⁶⁾

임진왜란은 우리 역사상 왜군의 침략으로 한반도 전 국토가 초토화된 뼈아픈 전쟁이었으며, 조·명 연합방위전략을 갖춰 놓고도 대명(對明) 사대관계(事大關係)의 신뢰구축에 실패하여, 조선이 정말 필요한 시기에 명나라의 군사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이다.

또한 국가안보의 최우선 전략은 자위능력을 갖추는 것이며, 자위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는 작전 주도권이 지원군에 넘어감으로써 자국의 운명을 제 3국에 맞긴 채 방관자로 전락하게 되는데, 임진왜란 당시 전투력이 없었던 조선이 명군에 의존하여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33) 『선조실록』 선조 26년 5월 癸亥.

34) 장학근, 전계서, p. 171.

35) 『선조실록』 선조 30년 4월 乙亥.

36) 장학근, 전계서, pp. 177~185.

군사개입은 군사동맹보다 자국의 국익을 우선하며, 견고한 군사동맹은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서, 오늘날 주변국 안보외교는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하며, 임진왜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명(明)의 군사개입 영향요인

명나라는 276년 동안 여진족의 여러 부족에 대하여 시종 분열정책을 취하였으나, 조선과는 조·명 연합방위전략으로 한반도에 군사개입을 하였다. 명나라의 군사개입 영향요인을 네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겠다.

첫째, 명의 한반도 군사개입 의도이다.

명의 군사개입 의도는 중국 내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이익에 따라 개입하였다. 조·명 연합방위전략이라는 명목으로 명나라는 조선을 대마도 정벌의 대리전쟁과 월경작전(越境作戰)에 이용하였으나, 정녕 왜군 침략으로 조선이 위기에 처해 지원군이 절실히 필요할 때는 지원하지 않았다. 이는 명의 내륙이 진동될 것을 염려하여 설번이 주장했던 것과, 자국의 국경이 위태롭게 되자 요동 수비대를 급파하고, 10만 대군을 파병하겠다는 사례에서 명의 의도를 잘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조선을 돕겠다고 참전한 명군이 조선의 영토에서 당사국인 조선 정부를 배제시키고, 강화회담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조선영토 분할지배, 조선 항복서약, 전쟁중단 등 침략자(왜군)와 외교교섭을 벌인 사례이다.

둘째, 명의 군사개입 시기이다.

만력황제 신종(神宗)은 조선에 왜군이 침략하여 조선왕이 파천하는 위급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조선으로부터 지원군 요청을 받았으나, 왜정통보 문제로 조선을 불신하여 조선이 원하는 위급한 시기에 지원병을 보내지 않았다. 조·명 연합방위전략도 사대의 명분보다 국가이익을 우선하며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시기에 출병하였음을 볼 때 그 저의를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당나라가 7세기 중국 내륙의 안정을 위한 완충지대

로 원산~대동강지역을 확보하였는데, 16세기 명나라도 왜군이 대동강을 넘어오려 하자 다급하게 대군을 파병함으로써 중국 내륙의 안정을 위한 완충지대가 원산~대동강지역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군사개입 시 군사력 투입 규모이다.

명나라 조정은 1차 전쟁에서 총 47,000여 명의 지상군을 파병하여 왜군 섬멸보다는 강화회담으로 전쟁을 끝내려 하였다. 2차 전쟁에서는 총 6만여 명(수군 8천 포함)을 파병하였으며, 조·명 연합함대의 해전승리는 이순신장군을 동양 최고의 해군 사령관으로 평가해도 될 만큼 빛나는 것이었다.

특이한 점은 명의 장기간 조선 군사개입이 국가재정과 국방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결국 여진족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은 중국의 주변 분쟁지역 군사개입 시 단기속결 전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반도 군사개입 시 이동로이다.

명군의 1차 파병은 대동강 이남 조선 영토에서 왜군을 격퇴할 목적으로 지상군을 평양성으로 이동시켰고, 2차 파병에서는 왜군진출이 국경에 위협이 되지 않으므로 지상군과 해군은 충주를 거쳐 경상도와 부산 방향으로 진군하였다. 특히 조·명 연합함대가 남해와 부산 앞바다에서 왜군을 수몰시켜 대승을 거둔 것은 해전사에 매우 큰 의미를 갖게 한다. 명의 수군은 당 태종이 새로운 군사전략으로 3백 척의 군함(軍艦)을 준비했던 산둥성(山東省) 내주(萊州)³⁷⁾에서 출항한 것으로 산둥반도는 7세기부터 준비된 해군 전략기지였음을 알 수 있다.

(3) 중국의 6·25전쟁 시 군사개입

1) 전쟁수행 결과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고, 북한과는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이념적 동질성 외에 북한이 신중국의 탄생에 적지 않은

37) 『資治通鑑』 卷199 唐紀15 貞觀 22年 4月.

공헌을 한 과거로 인해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³⁸⁾ 중국은 6·25전쟁 개전과정에서 북한에 도덕적인 간접지원을 하였고, 미국이 참전할 경우 참전한다는 약속 외에 물리적인 직접지원도 했는데, 이는 북한 전쟁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다.³⁹⁾

중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와 무관한 듯이 침묵을 지켰다. 중국 정부가 6·25전쟁에 대한 자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하게 된 것은 3일 뒤인 1950년 6월 28일 정무원 총리이자 외교부장인 주은래(周恩來, 1898~1976)의 논평이었다. 그는 미 제7함대의 대만 해협 진주를 명령한 미국의 트루먼(Harry S. Truman, 1884~1972) 대통령과 그 정부를 겨냥해 6·25전쟁은 미국이 “이승만 괴뢰정부”를 교사해 일으킨 전쟁이자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음모라고 했다.⁴⁰⁾

북한의 기습적인 침략을 받은 한국군은 개전 초 북한군의 공세로 열세를 면치 못하였으나, 미국과 유엔군의 개입으로 북한군의 공격은 약화되었고,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서울을 탈환하게 되었다. 1950년 9월 말경 전세가 역전되어 북한군은 남한지역에서 패주하였고, 아군은 38도선 이남을 다시 회복하였다. 여세를 몰아 38도선 이북으로 진격하여 북한군을 대거 격멸함으로써 전쟁 종식과 함께 한반도 재통일의 목표달성을 낙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 10월 19일 중국군 개입으로 전쟁의 대상이 북한군에서 중국군으로 확대되었으며, 전쟁의 양상은 장기전으로 전환됨으로써, 한반도의 운명은 물론 세계사를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 중국은 장장 33개월 간 세계 강국 미국과의 전쟁에서 230만여 명이 참전하여 총 병력손실이 42만 6천 명으로 이는 미군에 2.62배의 피해⁴¹⁾를 입었다.

38) 국방부, 『6·25전쟁사』 제1권 전쟁의 배경과 원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 23~26. 참조.

39) 서상문, 『毛澤東과 6·25전쟁』,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6), pp. 322~332. 참조.

40) 「外交部周恩來部長關於反對美國總統杜魯門六月二十七日聲明和美國武裝侵略我國的聲明」(1950年 6月28日),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宣傳部編, 『偉大的抗美援朝運動』, (北京: 人民出版社, 1954年), p. 4.

41) 沈志華,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결정에 대한 평가”, 『한국전쟁과 중국』, (서울: 백산서당, 2001), p. 273.

6·25전쟁은 남한과 북한의 동족 간에 벌어진 국내전이기도 하였지만, 미국과 러시아(舊 소련)를 중심으로 한 동·서 양진영 간 냉전의 산물이었다. 또한 미국의 즉각 개입과 UN군의 참전, 중국의 전면전 개입, 러시아의 비공식적 지원이 있었다는 점에서 국제전으로 규정지어진다.

20세기 한반도에 뼈아픈 상처를 남긴 6·25전쟁은 김일성이 미국의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오판하여 전쟁을 도발했듯이, 당시 미국은 중국이 참전하지 않을 것으로 오판하여 38도선을 돌파하여 확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최근 미국 CIA 공개 자료에 의해 확인되었다.

2) 중국의 군사개입 영향요인

중국의 군사개입 영향요인은 6·25전쟁 발발 이전인 1949년 5월부터 중국군이 한반도에 진입한 1950년 10월 19일까지 약 17개월간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 기간 동안 군사개입 결정에 작용했던 모택동의 전략, 파병 결정 과정, 사회현상과 정부정책 등 중국의 국내·외적 요인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첫째, 중국의 6·25전쟁 군사개입 의도이다.

중국 모택동은 스탈린으로부터 신뢰회복과 정치·경제·군사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했다.⁴²⁾

모택동은 1949년 12월부터 1950년 2월까지 모스크바에서 양국 간에 신 “중·소 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⁴³⁾을 체결하였고, 스탈린의 요청으로 김일성이 남침 시 한국을 돕는 세력이 개입할 경우 중국군을 파병할 것을 러시아와 약속하였다. 그 결정이 있는 후 스탈린은 중국의 100개 보병사단에 장

42) 한국전략문제연구소, 『中共軍의 韓國戰爭史』, (서울: 세경사, 1991), pp. 9~10.

43) 沈志華, 『毛澤東·斯大林與朝鮮戰爭』, (廣東: 廣東人民出版社, 2003), pp. 148~150 : 1950년 2월 14일 신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은 양국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는데, 중국은 1950년 4월 11일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비준했고, 러시아는 1950년 9월 30일에 비준하여 발효되었다. 서상문, 『毛澤東과 6·25전쟁』,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6), p. 282: 모택동은 중소동맹체결에 대해 경제적 이익추구와 국가안보적 목적의식이 혼재된 의미를 부여함.

비지원과 156개 산업프로젝트⁴⁴⁾를 제공해 주었으며, 이는 해·공군력 건설과 군수산업 발전에 지대한 도움이 되었다.⁴⁵⁾ 이를 증명하는 자료로 모택동은 스탈린의 신뢰회복은 '항미원조'(抗美援朝)부터이며, 중·소 동맹조약은 두 달간의 협상과 투쟁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했다.⁴⁶⁾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의 정권수립 이후 국가발전에 필수적인 외교적 지원, 정권의 공고화, 경제회복 및 군의 현대화 등을 위해서 모택동은 스탈린으로부터 신뢰회복을 통한 지속적인 원조가 절실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 공산정권 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한 완충지대 확보이다. 주은래(周恩來)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중국의 머리를 강타할 수 있는 쇄망치”와 같은 위치에 놓여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⁴⁷⁾ 한반도가 중국인들에게 중요시됐던 까닭은 이처럼 한반도가 어떤 세력에게 어떻게 이용되는가에 따라 중국의 심장부를 위협할 수도 있고, 반대로 동북지역의 울타리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중국 역대 왕조와 많은 지식인, 전략가들은 오랫동안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해 왔고, 모택동 역시 북한정권과의 관계를 “입술이 없어도 이가 시리고, 바깥문이 망가지면 집 안채가 위태로운”(唇亡則齒寒, 戶破則堂危) 관계로 인식했다.⁴⁸⁾ 즉, 중국 국가안보를 위한 완충지대 확보차원에서 군사개입을 한 것으로 중국의 전략적 중핵지역을 방위하기 위한 주변지역인 북한정권을 유지시키려는 의도였다.

마지막으로 미군을 대만과 한반도에서 축출하여 미군의 군사개입을 방지하려는 의도이다. 중국은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발생한 전쟁은 '한반도 내전'이라 명하였으며, 이후 미국이 개입하였을 때는 '미국의 한반도 침

44) Liu Zhiqing, "Kang-Mei Yuan-Chao shiqi de Zhong-Su Guanxi"[항미원조시기의 중-소 관계] in She-Ke Zhongheng, No.1 1991, p. 34.

45) David Tsui,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V)", 『전략연구』 제39호(2007), pp. 197~199.

46) 박두복,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원인", 『한국전쟁과 중국』, (서울: 백산서당, 2001), p. 171.

47) Cho Soon-Sung, *Korea in World Politics, 1940~1950*(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1967), p. 5.

48) 楊鳳安, 王川成, 『駕馭朝鮮戰爭的人』,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3), p. 71.

략'이라 규정하였고, 중국이 참전한 후에는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이라고 칭하고 있다.⁴⁹⁾ 당시 중국은 모든 곤란을 극복하기로 결심하고 중국 인민지원군을 조직하여 조선전장으로 보냄으로써, 조선인민과 함께 미국 침략자를 반격하기로 했다. 중국이 미국을 불구대천의 적으로 규정한 이유도 "중국 인민의 생존과 안정을 위협하는 미국의 침략을 좌시할 수 없다"⁵⁰⁾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중국 인민들이 조선 인민들의 항미전쟁을 지지하고자 하는 것은 도의적인 책임만이 아니라 전체 인민들의 생존에 직결되는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며 자위의 필요성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군사개입을 합리화했다.⁵¹⁾ 이러한 중국의 미국에 대한 적개심은 1950년 8월 25일 미군의 중국 안동(安東)지방 오폭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욱 고조되었다.

이러한 모택동의 군사개입 의도는 중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현실주의자로서 역대 중국왕조들이 중시해온 지정학적 안보관인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관계로 인식되어진다. 결과적으로 모택동은 중국의 국익보호를 위해 스탈린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이는 정치적 복종관계⁵²⁾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내부 반혁명세력 진압 및 정치적 통합달성, 항미원조 지원군의 현대전쟁경험과 군 현대화, 그리고 중국의 UN가입과 대만에서의 미군 철수⁵³⁾ 등 모택동 특유의 군사전략이 내재된 의도가 있었다. 특히 한반도 군사개입으로 중국군이 유리하게 전쟁을 이끈 후에 미국과 외교담판⁵⁴⁾을 하려 했다는 고도의 전략과,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다"는 모택동의 군사전략은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⁵⁵⁾

49)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개서, pp. 3~14.

50) 吳洽西, "爲什麼我國人民對於美國擴大侵朝戰爭不能置之不理", 『時事手冊』, 第2期(1950年 11月 5日), p. 3.

51) 「中國各民主黨楊派鳳關於抗美援朝保家衛國的聯合宣言」, 『人民日報』, (1950年 11月 5日).

52) David Tsui,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I)", 『전략연구』 제35호(2005), pp. 172~174. 참조.

53) David Tsui,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Ⅷ)", 『전략연구』 제42호(2008), pp. 224~247. 참조.

54) 한국전략문제연구소, 『中共軍의 韓國戰爭史』, (서울: 세경사, 1991), p. 11.

55) 徐祿友, 『砲兵戰術基礎』, (湖南: 國防科技大學出版社, 2000), pp. 121~122; 황병무,

둘째, 중국의 6·25전쟁 군사개입 시기이다.

중국의 6·25전쟁 군사개입 시기에 대한 기존연구는 1950년 1월, 7월, 또는 7월부터 10월 등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⁵⁶⁾ 본인은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시기를 실제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어 북한으로 지원된 시점을 기준으로 1·2단계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본다.

1단계 군사개입 시기는 1949년 5월부터 1950년 6월, 6·25전쟁 발발 이전까지로 모택동은 김일성으로부터 한반도 무력통일계획을 처음 설명 듣고 3가지 조건⁵⁷⁾이 충족되면 중국이 군사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김일성의 요청으로 중국군 내 조선인부대를 북한에 귀환시켜 김일성의 남침 준비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는 중국군이 북한에 지원한 제1차 전략계대⁵⁸⁾

『新中國軍事論』, (서울: 법문사, 1995), p. 112. 모택동이延安시절에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열독하고, 「클라우제비츠 연구조」를 편성, 『전쟁론』의 주요 아이디어를 토론했음이 최근 중국 군사과학원 소속 연구원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모택동은 “지구전략론”을 구상, 저술하기 이전, 1938년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延安에서 『전쟁론』 일본어판을 번역한 중국어판(上海: Xinken 서점간, 1934)을 여러 번 읽었다. 항일전쟁이 발발했을 때 모택동은 일본어 『전쟁론』의 중국어판이 아닌 러시아어 『전쟁론』의 중국어판을 가지고 「클라우제비츠 연구조」를 편성하였다. 이 중국어판은 당시 朱德, 葉劍英에 의해 좋은 번역판으로 칭찬을 받았던 번역본이었다. 이로써 보건데 모택동의 전쟁의 본질, 지구적 방어론 등은 클라우제비츠의 전략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解放軍報』, 1988. 12. 1. 인용은 *FBIS, CHI*, 1989. 1. 12일, p. 35.

- 56) 중국학계의 徐澤榮은 모택동이 군사개입 준비를 시작한 것은 1950년 1월부터였다고 주장. 이러한 주장은 스탈린과 중소동맹 체결시 김일성의 남침문제 논의와 중국 내의 군대 이동까지 참전행위의 범주로 인정하였음. 「中國介入朝鮮戰爭之始末與目標」 分章摘要, 『傳記文學』, 第77卷第4期(2000年10月號), p. 47. 이종석은 중국지도부의 군사이동 배치를 참전준비로 하여 1950년 7월로 주장.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2000), p. 129. 서상문은 3단계를 거쳤다고 주장. 1단계는 6~8월 중순까지로 군 병력을 동북지역으로 이동 배치, 2단계는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부터 9월 말 기간동안 모택동이 최종적으로 파병 결심시기, 3단계는 모택동이 자신의 결심을 당 지도부에 공문 화하여 최종 결정된 10월 초부터 10월 19일로 보았다. 서상문, 『모택동과 6·25전쟁』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6), pp. 65~66.
- 57) 한반도에 외국의 무력이 개입한다면 중국군을 보내겠다고 3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즉 중국이 중국대륙의 완벽한 통제력 달성, 국제적 상황의 유리한 전개, 김일성 제안과 중국군의 한반도 진입에 대한 러시아의 승인이었다. 중국은 외국의 무력개입을 미군이 아닌 일본 지상군 6~7만 명이 파병되리라 판단했다. David Tsui,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Ⅲ)”, 『전략연구』 제37호(2006), p. 195.
- 58) Goncharov, *Uncertain partners*, pp. 140~141. 중국군대를 보낼 수 없었고 조선족들만 보냈으며, 북한 군복을 입혔다. 김일성은 모든 것을 비밀에 부쳤으며 남침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한반도 개입준비는 국방전략예비대인 제42군 이하 7개 사단을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중국군 정보부대가 한반도에서 첩보활동을 개시했던 1950년 1월 시작되었다. 모택동에 대한 스탈린의 불신은 모택동이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한 이후 사라졌으며, 모택동은 유리한 조건으로 신 '중·소 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⁵⁹⁾을 체결하여 중국의 국가발전에 절실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모택동의 적극적인 군사개입 의지는 스탈린과 신뢰회복을 위한 고도의 전략⁶⁰⁾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50년 5월 15일 모택동은 김일성의 남침 시 적대적인 외국세력이 남한을 지원할 경우 중국이 파병할 것이라고 약속함으로써 공식적인 군사개입을 선언하였다고 필자는 본다.

하지만 이 시기에 중국은 미국의 개입보다는 일본군이 한반도에 투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준비를 하였으며, 미군이 개입하고서야 판단 오류였음을 알게 되었다.

2단계 군사개입 시기는 한반도에 미군이 직접 개입한 이후부터 1950년 10월 19일까지로 6·25전쟁에 군사개입을 결심하고 실행한 시기이다. 즉 미군의 6·25전쟁 참전과 인천상륙작전 성공, 38도선 돌파로 모택동은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고 며칠 밤잠을 못자며 일생일대에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렸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를 통해 개입준비를 결정하고 국방전략예비대인 제13병단을 동북변방군(東北邊防軍)으로 편성하

59) 沈志華, "1950년 중소조약의 체계: 소망과 결과", 『中共黨史研究』, 1998년 제2, 3기: 모택동은 스탈린의 신뢰회복을 통한 러시아의 지원이 절실했고, 러시아와 어려운 담판으로 기한 내 창춘의 철도와 뤼순, 다렌을 반환토록 한 것은 "호랑이 입에서 먹이를 빼앗는" 것과 같이 어렵게 달성된 것이었다.

60) 모택동은 1941, 1942년 스탈린의 지원요청을 거절하여 발생한 불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1947년 초부터 모스크바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스탈린으로부터 다섯 번이나 거절당했다. 모택동은 1949년 5월 김일성에게 장차 지원을 약속하고 중국군 내 조선인부대를 이양한 후 스탈린이 보낸 "모택동을 중국 국가최고 권력자로 인정할 것이다"는 전보를 받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팔을 들고 "스탈린 만세"를 삼창했다고 한다. 또한 모스크바에서 회담 중 임표의 조선인부대 북한 귀환과 42군 동북지역으로 이동명령 등 스탈린의 신임을 받기에 충분했다. David Tsui,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V)", 『전략연구』 제39호(2007), pp. 187~192.

여 동북지역으로 이동시켰다. 미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과 38도선 돌파는 모택동의 개입 결심을 굳히게 했고, 중국 중앙정부는 한반도 전쟁개입에 관해 총 14차례 회의를 통해 모택동의 개입결심을 실제행동으로 구체화하였다.⁶¹⁾

김일성의 공식적인 중국군 지원요청과 모택동의 개입결심은 중국정부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1950년 10월 19일 '항미원조 지원군'(抗美援朝支援軍)이 압록강을 도하함으로써 결국은 6·25전쟁에 개입하게 되었다.⁶²⁾

한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개입한다는 것은 국가의 국운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판단이다. 스탈린은 김일성이 한반도 무력통일계획 승인을 3번 간청하였으나, 여러 가지 환경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승인하지 않았다. 오직 자국의 국익차원에서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한반도의 전쟁 발발이 자칫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발화지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1950년 1월 여러 가지 국제상황이 스탈린이 판단한 각본대로 진행되자, 김일성의 무력통일 계획을 승인하였고, 그 중심에 중국의 모택동을 개입시켜 미국을 상대하도록 하였다. 중국은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처음부터 알고, 급변사태 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중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입시기보다 훨씬 전인 6·25전쟁 발발 이전부터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동안 6·25전쟁을 미국의 북침이라 주장했던 중국은 2010년 6월 24일 중국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온 관영 신화통신 보도로 "6·25전쟁은 북한의 남침"⁶³⁾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셋째, 군사개입 시 군사력 투입 규모이다.

중국은 북한의 요청으로 6·25전쟁 발발 이전 1949년 7월부터 중국군 내 조선인부대 3개 사단을 북한지역으로 귀환시켰다.⁶⁴⁾ 1950년 5월부터 정보

61) David Tsui,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V)", 『전략연구』 제39호(2007), pp. 224~225.

62) 서상문, 전계서, p. 66.

63) 장세정, "6·25는 북한의 남침, 중국 처음 인정했다", 『중앙일보』, 2010. 6. 25.

64) David Tsui,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II)", 『전략연구』 제36호(2006), pp. 162~164.

부대 요원을 한반도에 파병하여 첩보를 획득하였다. 중국 지도부는 1950년 8월 31일 제8차 회의에서 36개 사단과 11개 독립연대를 포함한 총 병력 70만 명을 3개 제대로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⁶⁵⁾ 1950년 10월 1일 북한 김일성의 정식 지원요청을 받고, 중국은 1950년 10월 19일 국방전략예비대⁶⁶⁾인 제13병단 예하 제38·39·40군단과 동북군구로부터 배속된 제42군단, 그리고 제1·2·8포병사단과 공병, 기병 등의 특종부대 수 개 사단 및 연대를 포함해 총 25만여 명을 '항미원조 지원군' 제1제대로 파병하였다. 2선에 제9병단을, 3선에 제19병단을 동북지역으로 이동시켜 파병을 준비하였다.⁶⁷⁾ 중국군은 6·25전쟁 기간 동안 230만여 명을 한반도에 파병하였다. 파병 초기 공군은 러시아에서 3개 사단 규모를 지원받았으며, 해군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넷째, 한반도 군사개입 시 이동로이다.

1950년 10월 19일 한국군과 UN군이 평양, 원산선을 넘어 진격할 때, 지원군 각 부대는 모택동의 명령에 따라 단둥(丹東), 안동(安東), 장춘하구(長橋河口), 집안(輯安), 통화(通華), 심양(瀋陽), 철령(鐵嶺) 등에서 압록

본 자료의 69,200명은 이완범의 기존자료와 차이가 있음: 1949년 7~8월 중국 장춘, 선양에 주둔하던 인민해방군 제4야전군 164, 166사단 조선인 병사 2만여 명이 북한으로 귀환하여 북한군 5, 6사단으로 개편되었고, 1950년 5월 중국군 최정예부대인 독립 15사단 1만 4,000명이 7사단으로 편성, 별도 3,000명의 병사가 들어와 4사단 18연대로 편성되었음. 『한국전 문서요약』(1950. 1. 8), p. 19. 『한국전쟁관련 소련 극비외교문서(1949.1~1953.8)』, (서울: 대한민국 외무부, 1994), 이완범,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 『한국전쟁과 중국』, (서울: 백산서당, 2001), pp. 212~214. 참조.

65) Xu, Di-yi ci, p. 19; Deng, Xin Zhongguo, p. 18; Qi Dexue, Chaoxian Zhanzheng juece neimu [한국전쟁 정책 내막] (Shenyang: Liaoning Daxue Chubanshe, 1991), p. 31.

66) 전군에서 전투력이 가장 뛰어난 제4야전군의 제13병단과 제1야전군의 제19병단 등 2개 병단을 북경을 중심으로 한 화북지역 방어뿐만 아니라 유사시 전국 차원의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이른바 '중앙인민정부 인민혁명군사위원회' 직할의 '국방전략예비대'로 운용하고 있었다. 특히 제13병단은 전투력이 가장 강한 정예부대로 '철군' 칭호를 얻은 부대이며, 교통의 요충지인 중원지역의 하남성에 위치하여 중국을 둘러싼 주요 완충지대인 대만, 베트남과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되어 있었다. 서상문, 『毛澤東과 6·25전쟁』,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pp. 79~80.

67) 서상문, 전계서, pp. 77~113.

강을 건너 북한전장으로 들어갔다.⁶⁸⁾ 이로써 팽덕회(彭德會) 사령관의 지휘로 6·25전쟁 참전이 시작되었다.

3. 중국의 군사개입 결정요인 분석

역사적으로 중국이 한반도 군사개입 결정 시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전쟁사례에서 공통적인 영향요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군사개입 영향요인 종합 평가

구 분	당(唐)	명(明)	중 국
전쟁기간	660~668	1592~1598	1950~1953
동맹관계	나·당 군사동맹	조·명 연합방위전략	북·중 상호방위조약
개입의도	- 영토팽창(한반도지배) - 국가안보: 잠재위협 제거	- 국가안보(침략위협) - 완충지대 확보(대동강선)	- 국가안보, 국가이익 - 완충지대 확보(평양) - 항미원조, 순망치한
개입시기	- 신라지원요청(12년 후) - 연합작전 개시	- 조선지원요청(9개월 후) - 평양합락, 본토위협 시	- 북한지원요청(19일 후) - 38도선 돌파, 평양합락 시
병력규모	- 지상군: 10만, 17만 5천 명 - 해군: 2만 명	- 지상군: 5만 2천 명 - 해군: 8천 명	- 지상군: 230만 명 - 해군: 7700명 - 공군: 7000명
이동로	- 지상군: 압록강 도하 - 해군: 산둥반도	- 지상군: 압록강 도하 - 해군: 산둥반도	- 지상군: 요양, 단둥, 신의주, 통화, 집안 등 - 해·공군: 미참전
결 과	- 완충지대 확보(대동강) - 신라 삼국통일, 당 안정	- 완충지대 확보(대동강) - 국력쇠약 명나라 멸망	- 완충지대 확보(38도선) - 국가안정, 군 현대화 기틀

첫째,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의도이다.

중국내륙의 지배 세력이 한반도에 군사개입한 공통점은 〈표 2〉 7세기부

68)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계서, p. 14.

터 20세기까지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국가안보에 최우선 전략'으로 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당은 신라와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영토팽창 정책'을 추진하여 잠재적 위협인 고구려를 멸망시킴으로써 한반도를 직접 통치하려 하였고, 명과 중국은 순망치한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완충지대를 확보하려고 개입하였다.

즉 당의 한반도 영토팽창정책은 원산~대동강선을 확보함으로써 중국내륙의 안보에 대한 지정학적 판단기준이 되었고, 명과 중국은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한반도의 완충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하였다.

역사적 사례에서 중국내륙 국가의 공통적인 군사개입 의도는 '자국의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였다는 것이다. 당은 태종 때 신라와 군사동맹을 체결하였지만, 실제 군사개입은 12년 후 고종이 신라를 이용한 협공전략이 당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출병하였다. 이는 신라왕과 조정대신, 승려, 상인 모두가 합심으로 '삼한통일'이라는 비전(備戰)을 가지고 당을 설득하여, 당의 한반도 군사전략을 바꾼 성과라 할 수 있다.

반면,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사대관계로 명을 위해 대마도와 여진정벌에 참전하여 연합방위전략을 단독히 하였으나, 정작 조선의 전 국토가 유린당한 위급한 시기에 명은 출병하지 않았다. 오로지 대동강 방어선이 붕괴되어 자국 방위가 위급하다 판단될 때(조선의 지원요청 9개월 후) 출병하였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조선의 국토를 유린한 침략자와 침략자를 물리쳐 주겠다는 지원자가 조선 통치권을 놓고 협상을 할 때, 자위권을 상실한 조선정부는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조선의 관료들은 국가안위는 뒤로 하고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빠져 주변국의 정세에 어두웠고, 왜정통보(倭情通報) 문제로 국가 간에 신뢰를 잃어 조·명 연합방위전략을 필요한 시기에 운용하지 못했다. 또한, 20만 왜군 침략을 국지전으로 판단하여 '지상전 위주의 수세전략' 명령을 하달한 조선 정부의 무능함이 국가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게 되었는지 뼈아픈 교훈을 주는 대목이다.

최근 한국 정부는 천안함 피격 사건을 UN 안보리에 회부하고, 국가안보

외교활동으로 미국 의회와 G8 회원국 정상들이 대북제재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UN 안전보장이사회가 2010년 7월 9일 “천안함 공격 규탄”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정작 한국 국회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후 3개월이 지나서야(2010. 6. 29)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사실에서 국가위기 시 당리당략으로 분열된 모습은 온 국민에게 역사적 교훈을 되돌아보게 한다.

당과 중국 통치권자의 호전성(好戰性)은 자국 내 어려운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선제타격 후 협상전략으로 주변국 영토를 점령한 후,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전개하기도 했다. 반면, 당과 명은 한반도 전쟁에 장기간 개입하여 국방력이 쇠약해져 주변국 침략을 받아 철수하거나, 멸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둘째, 군사개입의 시기로써 당, 명, 중국은 공통적으로 한반도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으며, 실제 군사과병 시기는 양국의 군사동맹보다 자국의 국가안보를 우선하여 판단하였다. 당은 고구려 공격 전략을 수정 후 12년 만에, 명은 평양이 함락되자 위협을 느껴 9개월 만에 출병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한 스탈린과의 관계, 항미원조, 순망치한, 보은적 측면 등 모택동의 복합적인 고도전략으로 1·2단계로 구분하여 비교적 신속히 출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각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시 군사력 투입은 시대적 상황과 국가 통수권자의 전쟁수행 의지에 따라 상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은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통수권자의 욕망으로 수십만 명을 동원하여 한반도에 집중함으로써 회홀과 토번의 침략을 받아 주력군이 철군하기도 하였다. 특히 13만 명을 함선으로 서해 바다를 건너 이동한 점은 준비된 수백 척의 함선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명의 만력황제는 비교적 호전성이 적었고, 사후(死後) 황제릉 공사에 재정을 낭비하고 장기간 한반도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국방력이 쇠약해져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북경 역사유적지 13릉에 가면 황제 사후 기록할 공덕이 없어 공덕비에 ‘무자비(無字碑)’가 세워져 현존해 있는데, 중국 백성들의 원성이 들리는 것 같다.

중국은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한다는 모택동의 결정으로 230만 명(중국군 전체의 43%)의 대군을 파병하여 42만 6천 명이라는 천문학적 인명손실을 입었는데, 후세에 중국인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다.

특히 중국은 주변 국경지역 분쟁에 대비하여 최정예부대를 국방전략예비대로 편성하여 신속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이 부대가 한반도에 1체대로 투입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중국군은 정보부대를 6·25전쟁 이전부터 한반도에 투입시켜 한반도 지도를 구입하여 연대까지 지급하였고, 전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신문기자, 열차승무원, 상인 등으로 변장하여 낙동강 방어선까지 동행하며 첩보를 획득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을 예상하였다는 것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중국군의 현지통역을 위해 조선족 통역요원 2천여 명을 선발하여 분대급에 1명씩 배치하여 운용한 것은 우리군의 한·미 연합작전을 위한 어학자원 양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넷째, 한반도 군사개입 시 이동로는 당·명군은 군사전략에 따라 지상군과 해군의 합동작전으로 육로와 바닷길을 이용하였는데, 특이점은 해군의 경우 신라와 조선의 해군이 접선하여 안내를 하였다는 것이다. 중국군은 6·25전쟁 발발 이전에 25만 명의 대군을 동북지역으로 이동시 철도, 자동차, 말을 이동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북한지역으로 진입 시에는 미군의 공중공격과 초전 개입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둥과 지안 일대에서 압록강 도하를 2~3개 사단씩, 매일 황혼이 시작될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하고, 5시 이전에 산악지역에 은폐를 완료하라는 모택동의 전보(電報)명령에 의해 진행되었다. 25만 명의 대군이 10월 25일 최초 전투가 있기까지 6일 동안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모택동의 전보통제가 전장에서 말단제대까지 이행되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앞으로 중국군이 한반도에 개입한다면 과거 이동로와는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7세기부터 20세기는 2~3차원의 전장이었다면, 오늘날은 다양한 전장상황과 무기체계의 발달로 4차원 전쟁이 발생하여 완충지대 개념보다 비대칭전력, 항공우주전력, 네트워크 전장이 현실로 등장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 군은 중국군의 신속대응군 부대구조와 무기체계에 대응

할 수 있는 연합 및 합동작전, 핵심지역 선제타격, 단기 속전속결전 등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最近)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과 중국은 경제무역을 확대하고, 변경무역(邊境貿易)과 변경관광(邊境觀光)을 활성화하는 등 교류를 확대하고 압록강 대교⁶⁹⁾를 설치하는 데 합의하였다. 북한과 중국의 동북 3성(三省)간 교역 가운데 약 70%가 신의주~단둥 경로를 이용하는데 압록강 대교는 군사개입 시 지상군 기계화부대의 주요 이동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시 영향을 미쳤던 네 가지 요소를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항목별로 종합 평가한 결과, 각국의 군사개입 결정요인을 <표 3>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이들 일곱 가지 결정요인은 각 요인이 독립적으로 작용했다기보다는 네 가지 이상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각국의 '군사동맹 및 지원요청', '국가안보 및 자국이익', '주변국 우위확보'는 모든 전쟁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국가 주권 수호를 위한 가장 핵심적이며,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6·25전쟁에서 중국은 '통치권자의 호전성'과 순망치한의 '완충지대 확보', '북한에 대한 보은(報恩)관계'가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영토 팽창정책'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들 중 모든 전쟁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일반화가 가능한 군사개입 결정요인은 '군사동맹 및 지원요청', '국가안보 및 자국이익', '주변국 우위확보'가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오늘날 중국이 한반도 군사개입을 결정 시 위의 공통된 세 개의 결정요인은 최우선 고려되리라고 판단된다. 최근 UN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채택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서해안에서의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중국이 전례 없이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반도를 중국의 국익이 걸려 있는 외교안보분야에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문제

69) 2010년 5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압록강 대교 공사비 1,700억 원 전액을 중국이 지원하여 공사하기로 최종 합의하였음.

에 관한 중국의 의사결정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 공산당의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中央外事工作領導小組)에서 기본방향을 정하고, 9인의 '중국 공산당 정치국상무위원회'⁷⁰⁾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어 승인되면 강력히 실행된다.

〈표 3〉 군사개입 결정요인 분석

작용: O, 미작용: X

구 분	당(唐): 660~668	명(明): 1592~1598	중국: 1950~1953
군사동맹/지원요청	O	O	O
국가안보/자국이익	O	O	O
완충지대 확보	X	O	O
영토팽창정책	O	X	X
주변국 우위확보	O	O	O
통치권자 호전성	O	X	O
보은(報恩)관계	X	X	O

지금까지 역사적 사례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신라가 군신(君臣)이 하나 되어 강대국의 힘을 이용하여 삼국통일의 국가전략을 달성하였듯이 강대국의 힘을 잘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조선의 잘 구축된 연합 방위전략도 신뢰를 잃어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국가 간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모택동의 호전사상과 외교단절, 미국에 대한 오판으로 인해 잘못된 군사개입 결정을 한 것에서 우리는 국제정세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국가가 군사개입 결정시 군사동맹보다 자국의 국가안보와 자국이익이 최우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0) 중국은 최고 권력자 국가주석이 존재하지만, 9인집단지도체제로 국정을 운영함.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당 최고 권력기관이며, 최고 의사결정기구체이다. 현재 후진타오(胡錦濤)가 국가주석,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중국의 최고 권력자이다.

4. 맺 음 말

최근(最近)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2015년 12월로 연기하는 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합의하였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의회는 천안함 사건 관련, 한국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북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침략행위"라며 단호한 대응을 하여 미국이 한국의 우방국으로서 굳건한 신뢰감을 갖게 했다. 반면,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응과정에서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떠한 행위도 규탄하고 반대한다"⁷¹⁾고 말했다. 이는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미래 한반도 안보정세와 국방발전' 학술회의에서 "세계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남들보다 앞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⁷²⁾고 강조했다.

또한 황장엽(전 북한 노동당비서)은 2009년 12월 육군 교육사령부 초빙 강연에서 "중국은 북한 지역을 흡수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붕괴 후 북한 지역에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중국의 13억 인구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코 원치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은 북한에 급변사태⁷³⁾가 발생하면 6·25전쟁과 같이 단독으로 군사적 개입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만

71) 주용중, "캐나다 G20 정상회의, 후 주석 이 대통령 만나 한국 입장 충분히 이해", 『조선일보』, 2010. 6. 29.

72) 김태영, "어떤 위협도 당당히 극복 자신", 『국방일보』, 2009. 10. 14.

73) 한국정부는 급변사태의 유형을 ① 최고권력(김정일) 유고 ② 권력투쟁·쿠데타 ③ 주민 소요·봉기 ④ 대량탈북 ⑤ 외부제제·공격 등 5가지로 분류했다. 급변 이후 남북이 실제 통합단계에 들어갈 경우 우리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가통합위원회'가 설치된다. 안용현, "정부 北 급변사태때 현지 비상통치기구 세운다", 『조선일보』, 2010. 1. 14.

약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미·중 협력관계에 따라, 중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 형식의 개입이 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 양국의 군사개입은 중국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중국에 위협이 되는 난민문제, 국경문제, 대량살상무기, 북핵문제 등은 중국과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중국은 한반도 유사시 개입하려는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군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중국의 한반도 군사전략과 군사위협에 대비한 국가전략, 군사전략 및 작전적 수준의 대비가 철저히 요구된다. 대비책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전략 차원에서 중국 군사전략에 적합한 유연한 대중국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한다. 중국의 한반도 국가전략이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즉, 중국은 북한에 대해 과거와 같은 혈맹관계보다는 현실적 전략적 차원에서의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 내 일부 전략주의자(strategist)들은 북한은 중국의 이익에 큰 부담이 된다는 '북한부담론'⁷⁴⁾을 내세워 북한에 대한 제재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은 북·중 간 군사동맹이 유지되며, 한반도와 대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는 한, 중국의 군사개입 결정요인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저 없이 북한 지역에 신속대응군을 파병할 것이다.

이에 따른 대(對)중국 국가전략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경제 및 민간협력에서부터 상호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국방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정례화함으로써 군사적 신뢰 증진을 구축해야 하겠다.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발생 시 이명박 대통령이 현지를 방문하여 피해주민을 위로하였고, 베이징올림픽에서 현대자동차가 베이징 시내 모든 택시를 현대차로 지원한 사례는 중국인들에게 오래 기억될 것이다. 또한 중국과

74) 한석희,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대외관계』, (서울: 폴리테이아, 2007), p. 151; 박창희, "북한 급변사태와 중국의 군사개입전망", 『군사전략』 제51호(성남: 세종연구소, 2010), pp. 34~35.

경제무역 1위, 한국유학생 6만 명, 상호관광 등 민간협력분야에서 한류열풍과 함께 중국인의 정서를 친한화(親韓化)하는 것은 국가전략에 좋은 사례라 하겠다.

역사적 사례에서 신라가 당나라와 군사동맹을 체결하여 삼국통일의 대업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삼한통일의 국가전략으로 군신(君臣)이 하나가 되었고, 군(軍)은 김유신 장군의 화랑정신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양병했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조선은 당리당락에 눈이 어두워 군사력 증강을 게을리해 한반도가 초토화되는 뼈아픈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둘째, 중국의 개입의도를 사전에 억제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비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군사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중국군의 개입에 대해 적절한 '가정'을 수립하여 현실과 미래 전장에 부합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것이며 신속대응부대를 운용하여 주요 핵무기나 핵관련물질, 대량살상무기(WMD)를 장악하려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동북공정은 한반도 통일 후 간도, 만주지역 문제로 영토 및 국경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역사 교과서에 1592년의 임진왜란을 '왜에 대항해서 조선을 도와준 전쟁'(抗倭援朝戰爭), 1950년 6·25전쟁은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도와준 전쟁'(抗美援朝戰爭) 이라고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군사전략 전문가들은 미래의 전쟁은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적인 충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근거해 중국은 1993년 자국을 둘러싼 국지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80년대의 '현대적 조건하의 인민전쟁'(現代條件下的人民戰爭) 전략을 '첨단 기술 국지전'(高技術局部戰爭) 전략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군의 발전목표도 신속기동에 의한 즉각 대응능력의 향상과 첨단 기술 전력의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군비증강은 개혁·개방 이후 축적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중 간 2008년 수립한 '전략적인 협력동반자 관계'가 잘 유지된다면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유엔 주도하에 혹은 미국 및 한국과

의 협력하에 공동 대응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대중국의 의존도가 전체 대외무역수지의 70% 이상으로 높아 북한 급변사태 이후 재건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태평양사령부 티머시 키팅 사령관은 “북한에서 불확실한 권력승계가 이뤄질 경우 대통령이 명령하면 주한미군 등과 함께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군부세력이 저항하면 격퇴 및 치안유지에 미군 43만 명이 주둔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또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개입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중국의 개입에 대비하여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남한이 개입할 수 있는 관할권을 연구하여 평시부터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미 연합군이 개입 시에는 이런 중국군의 개입 의도와 규모, 개입 양상 등을 판단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는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중국 대륙으로 통하는 통로이다. 그래서 중국은 통일된 한반도가 중립적이며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비군사적이기를 원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시 중국의 역할은 소극적 또는 적극적 개입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소극적 개입은 북한과 한·미 연합군이 전쟁을 수행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전투근무지원과 서해상에서의 해상활동 강화를 통해 한·미 연합군의 서해상 상륙작전에 제한을 줄 수 있다. 적극적 개입은 주요 기동부대 파병을 통한 ‘정보화 조건하 국지전 승리’ 전략, 신속대응 및 결정적 작전 수행으로 주요 핵심전력을 선제타격 또는 확보한 후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는 북한의 작전 수행능력을 초기에 무력화하기 위한 선제타격 후 미군은 현 한국지역에서의 작전으로 제한하고, 휴전선 북방으로 반격은 한국군 단독으로 실시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6·25전쟁 참전을 결정 시 미군이 38도선을 돌파하면 중국군은 반드시 참전하고, 만약 한국군만 돌파하면 참전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했었기 때문이다. 중국군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고 한반도 내부문제로 한정시켜, 한국군 주도의 단독 군사 전략으로 38도선을 돌파하여야 한다. 이러한 한국군 단독 돌파계획은 대규

모 지상군부대 투입에 제한을 받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셋째, 중국의 신속대응군을 포함한 투입 예상되는 군사력을 저지, 격퇴할 수 있는 작전술 차원의 교리개발이 요구된다. 중국은 최근 한반도와 인접한 산둥반도에 전략 핵 잠수함, 최신예 전투기,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는 등 군사력을 대폭 증강해왔다. 산둥반도는 유사시 한반도를 통제하는 지난(濟南)군구 관할지역이다. 지난군구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대응군이 해상과 공중을 통해 북한 지역에 과병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역사적 사례에서 보았듯이 산둥반도는 당나라부터 해상전략기지였으며, 실제 서해상으로 상륙하여 백제를 멸망시킨 전례가 있다. 따라서 중국군의 서남해 해상위협을 고려한다면 중국군의 상륙작전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비한 대상륙방어 교리를 3군 통합작전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의 군사교류, 군 수탁교육 추진과 주변국 군사전략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상호 군사방문만 이루어질 뿐 군사학술교류, 군 수탁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육군대학은 1970년부터 수탁외국군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23개국 229명을 교육하였다. 육·해·공군대학 수탁교육생 현황⁷⁵⁾에서 알 수 있듯이 대만은 1970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은 79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중국과는 군 수탁교육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2005~2009년 한·중 고위 군사교류현황⁷⁶⁾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실질적인 군사훈련 상호참관, 군사 학술교류와 군 수탁교육을 통한 전략적 우호협력관계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군내 기관은 초보적인 수준이고, 대

75) 육군대학은 미국(87명), 대만(29명), 태국(20명), 일본(10명)을 포함 23개 국가에서 229명; 해군대학은 1985년부터 대만(23명), 필리핀(16명), 미국(12명), 일본(11명) 등 12개국에서 92명; 공군대학은 1982년부터 대만(27명), 태국(20명), 일본(17명), 미국(6명)을 포함 15개국에서 113명이 수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76) 5년 동안 한국의 중국방문은 국방부장관을 포함 13회, 중국의 한국방문은 국방부장을 포함 10회 방문하였음.

부분 대외기관의 교수나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중국의 위협을 고려하면 주변국 군사전략을 연구하는 기관의 확대와 해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군의 능력과 한계, 그리고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것은 중국의 군사개입 의도와 시기, 규모를 판단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992년 한·중수교로 인해 늦은 감은 있지만 한·중정상간의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과 한·미간 '북핵 그랜드 바겐 공동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떠한 위협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유연성과 합동성을 가지고 국가방위를 위한 현존 전력을 극대화하여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 한반도에서 급변사태 또는 전쟁발발 시 신속대응전략으로 국가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군 현대화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폭넓은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원고투고일 : 2010. 6. 9, 심사수정일 : 2010. 7. 16, 게재확정일 : 2010. 7. 27)

주제어 : 중국군, 한국군, 군사전략, 한반도, 군사개입, 급변사태, 군사대비, 전례분석, 주변국 위협, 중국군 현대화

<ABSTRACT>

A Historical Research on the Korean Peninsula Military Intervention Strate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o, Dong-uk

This thesis seeks to predic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s military intervention and provide a strategic direction for the response against Chinese military through the analysis of three examples of war, such as the *Silla-Tang* Military Alliance, the *Joseon-Ming* Combined Defense Strategy, and Sino-NK Mutual Defense Treaty.

According to the military history of Chinese interven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hina's basic strategy was to prevent Korea from having independent capability to confront China. Also, China attempted to interdict other maritime powers from utilizing the Korean Peninsula as a bridgehead to move forward mainland China. It is obvious that China regarded the *Weonsan-Daedong* River Line as a buffer zone to the security of mainland China. Through historic examples of war, the common decisive factors of PRC's military interven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re applied by three types: military alliance & request for backup, national security & national interest, securing the initiatives among neighboring nations.

The PRC military's main task relating to the Korean peninsula is to foster a secure environment around the peninsula. The QRF(Quick Reaction Forces) of PRC will be immediately put into military action in case of any emergent situations. The forces will be a significant threat to Korea.

Therefore, the directions for military readiness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military needs to develop various situations and make plans for the threat of new war in the wartime Korean Peninsula defense plan. The ROK military also needs to further develop the ROK-US Combined Operations Plan to implement a ROK-US military response scheme. It is vital for the ROK national security that the ROK military prepares to properly react to Chinese strategy on the Korean Peninsula by utilizing Sino-ROK military exchange programs and developing military doctrine in preparation of PRC military's modernization, and sending officers to China for the military education. The ROK military has to become robust forces capable of overcoming any threats in order to support the 'Strategic Companion Relationship' between the ROK and PRC, and uphold the execution of 'Grand Bargain' on the NK's nuclear issue. For this, our forces have to seize the initiatives in the battlefield by maximizing current strategy for the national defense, possessing flexibility and jointness. They also have to guarantee its national security through the Quick Reaction Strategy if it happens an emergent situation or war breaks out.

Key Words : Chinese Military, ROK Military, Military Strategy, Korean Peninsula, Military Intervention, Emergent Situation, Military Readiness, Military's Historic Analysis, Chinese Military Modernization